

*경배와 찬양	임재 / 신령과 진정으로 / 예수 열방의 소망 / 존귀한 어린양 / 위대하신주	다같이
대표기도		유건이
*성경봉독	창 15:8-17	이령희
말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주 신실하심 놀라워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창 15:8-17)

8 그러자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9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10 아브람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다. 11 솔개들이 그 쪼갠 고기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람은 그것들을 내쫓았습니다. 12 해가 질 무렵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13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네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네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15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6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헛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꼭 잘 알아야 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언약 vs. 계약)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 12장, 15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게 된 것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갈 3:6-7)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고후 6:16)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어떤 것인가요?
(언약의 주체) 언약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함께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 지를 반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주의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신 32:10)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보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마치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약의 근거) 이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식 모습을 보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그 언약을 지키실 책무는 하나님 혼자 스스로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창 15:12, 17)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 언약을 완벽히 지킬 수도, 그 언약이 파기된 결과인 죽음을 완전히 감당할 수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잠든 아브라함을 두신 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식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데에는 믿음과 함께 행위도 분명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때론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관해 두 가지를 특별히 경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적 율법주의입니다.**

(언약의 내용) 하나님과 언약 백성간에 맺은 언약에는 양쪽에게 요구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백성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떠나가라!**입니다. (창 12:1)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안전과 공급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며, 정착한 땅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할례를 받으라! (창 17:10)입니다. 할례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이를 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성장한 모세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알게 된 비결도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할례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은밀하고, 유혹이 많고, 생명과 창조명령과 직접 연관된 곳에 할례 (sealing)을 받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동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마음의 할례로 전환됩니다. (롬 2:28-29)

셋째, 언약 가운데 거하라! (창 15:6)입니다. 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25년간의 기나긴 기다림을 경험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반응도 보이기도 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도, 막상 정 반대의 일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 가운데 항상 거해야 합니다. 왜냐면,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때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적 책임을 다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삶의 기본적 필요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취업의 문도 여시고, 때론 기적적인 공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둘째, 그 후손을 왕성하게 하십니다.** 이는 혈통적 후손과 영적 후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 있어서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남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아담 이후 온 인류의 죄로 인해 어그리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한 승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최고의 가치있고 중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깨닫고, 이 언약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감사히 헌신하는 주님 님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솔직히 나누어 봅시다.
2.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 (일상에서 주의 백성임을 기억나게 하는 표시)는 무엇인가요?
3.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땅, 후손, 축복의 통로)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파송찬양

민족의가슴마다 (그리스도의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ZOOM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7시, 청년부 예배실 (매달 첫 주 제외)

목자/목녀 1일 영성 세미나

- 3월12(토) 오후 2시, 친교실
- 청년부 목자들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시간 안내

KM 2부, EM, 교육부(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Youth) 예배가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청년부 예배는 시간변동없이 1시에 드립니다.

토요 무릎 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
중보기도회(목요기도회) :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당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첫주제외)

정기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8호

FEB 20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지도장로

김상범
김종환

cptksb3@gmail.com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새가족 팀장

안혜진
하지수

anhyejin0714@gmail.com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